

전북문화예술종합정보지

문화저널

1990

통권21호~31호

전북문화저널사

편집을 마치고

- ...신년호부터 새 기획들을 선보인다. 꾸준한 자신의 삶을 꾸려온 주위의 사람들을 찾아 그 삶의 궤적과 의미를 되새기는 '아무개의 세상살이'와 이 지역의 삶과 문화, 역사의 편린을 새롭게 담아내는 '향토작가의 향토장편', 소문난 곳이 아니면서도 나름의 소중한 역사적 흔적을 지닌 유적지들을 소개하는 '저널여정'이 그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호응을 기대하며 '아무개의 세상살이'는 기왕의 '작가를 찾아서' 기획과 번갈아 실리게 됨을 알려 드린다.
- ...3월호부터는 전북지역과 연고를 갖고 활동한 실학자들의 사상적 뿌리를 탐색하는 전북대 하우봉 교수의 '전북의 실학자', 최근 <전북의 민요>를 펴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문학평론가 김익두씨의 '전북의 민속놀이'가 연재될 예정이다. 어려운 사정을 무릅쓰고 흔쾌히 청탁에 응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호로 마치게 되는 '소설에 대하여'를 써주신 우한용 교수께도 고마운 말씀을 올린다.
- ...이 땅의 노래문화에 새로운 지평을 연 <노래를 찾는 사람들> 초청공연이 3월 중순에 있을 예정이다. 그간 문화저널이 기획한 문화행사에 각별히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한다.
- ...필자 사정으로 '제8회 백제기행: 낙화암에 떨어진 꽃들' 원고가 다음으로 미루어졌다. 덧붙여 신년호 배부가 늦어지게 되어 송구스런 마음 금할 수 없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

독자투고

문화저널은 독자 여러분에게 열린 잡지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에 관한 의견이나 행사를 보고 느끼신 감상을 적어 보내 주시면 소중히 다루어 실겠습니다.

- 일반평론 / 200자 원고지 40매 내외
- 문화시평 / 200자 원고지 12매 내외
- 독자의편지 / 200자 원고지 3-4매
- 독자서평 / 200자 원고지 10-20매
- 문화관계자료 / 제한이 없습니다.

정보자료

문화 정보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각종 문화예술 행사의 일정과 내용을 보내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립니다. 전시회 팸플렛·도록·단행본·사진 등을 보내 주시면 지역 독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정기구독

책 사이에 있는 우편엽서를 이용하시거나 저희 사무실을 직접 찾아 주셔도 됩니다.

지역문화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
전북 문화예술 정보지

문화저널

1989년 11월 12월 합본호 / 통권 제20호

■ 문화공보부 등록 라-4143호 (1989. 5. 25)

■ 1989년 12월 25일 발행 (월간)

발행 · 편집인 / 진 호

편집주간 / 이종민

편집위원 / 심인택 · 이홍재

김은정 · 이병천

한대열 · 최태엽

최만호

■ 인쇄 / 신아문예사 (☎ 75-4000)

전북 문화저널사

우 560-060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가 408-8 ☎ 86-4824

값 500원

문화정보지

문화저널

1990

신년호

제 4 권 제 1 호 통권 21 호

저널이 본다 / 참된 '살아남음' 을 위하여	2
강낙승의 세상살이 / 마음 바꾸는 일로 살아 온 70여생	4
특집 · 백제기행 ⑨ / 흙과 불과 장인의 정신	9
방담 / 백제기행을 말한다	14
시 / 1990년 1월의 시	22
영상 / 새해의 기원	23
연중기획 / 백제 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⑧	24
문화기고 / 소설에 대하여 ④	27
우리문화연구 / 판소리란 무엇인가 ③	30
참교육의 현장 / 어느 선생의 하루	32
기획시리즈 / 가곡 ⑦	34
향토작가의 향토장편 ① / 뽕데기	38
문화시평	42
문화정보 / 1·2월의 문화가	45
서평	50
저널여정 ① / 개암사와 두류산성	54
편집후기	55

· 1989

전북문화저널사

뽕 데 기

이 병 천 소설가

문화저널은 매달 한 편씩의 짧은 소설을 독자들에게 선보입니다. 그러나 이 난은 소설이기보다는 우리 향토인들의 문화 역사적 기록이나 보고와 같은 형식이 될 것입니다. 필자들은 이 난을 통해 잊혀진 향토사의 한 부분, 정사에 가리워진 숨은 이면의 야사, 현세의 우리 삶을 특징지우는 여러 상황들, 그리

고, 우리 향토만의 모습들을 하나 하나 파헤쳐보일 예정입니다. 소설의 형태뿐 아니라 희곡, 수필, 르뽕, 서간체, 일기 등 다양한 모양의 그릇에 담겨질 '향토 작가의 향토 장편'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향토인의 삶과 문화, 향토인의 역사 한 편린을 밑거름으로 훗날 크나큰 문학이 싹터줄 것도 기대합니다.

이제 내 고향에 얘기를 좀 해야겠다. 웬지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가하면 자랑스러운 그 고향의 그 얘기들.

사실 나는,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정말 있었던, 그래서 내가 직접 목격했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충격이었던 터라 끊임없이 회의를 왔다. 그 일이 대체 사실이었을까? 내가 소설을 쓰다쓰다 이제는 정말이지 소설 따위를 만드는 게 아닐까? 여태 말하지 못하고 쓰지 못한 이유가 그것이었다.

그러다가 현장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후배 하나가 나를 찾아와 만난 일이 있었다. 그런 친구들이 흔히 그렇듯, 얼굴의 살갗은 푸석푸석하고 입술의 겹질이 말라 벗겨지던 후배의 모습은 우선 보기에 안쓰러웠다. 말을 하지는 않아도 끝없이 나를 질타하는 듯한 눈빛에 괜히 죄스럽기도 하던 날이었다.

“술 한잔 할래!”

“요즘은 못허는디요, 형! 나 술 한잔 사줄 수 있으면 대신 쪼깨만 도와 주시요.”

“또, 머어술 마!”

“줄지에 한 이삼십명 아이들의 애비 노릇을 하게 됐어요. 공단지역에다가 탁아소를 채렸거든요.”

“뭐, 탁아소? 남쪽에도 그런 게 있나?”

“우리가 땡글었죠. 뭐! 먹고 살라고 부모가 아침부터 함께 일나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애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아시요?”

“.....”

“돈있는 사람들이나 유아원이니 유치원에 보내죠. 대부분은 그냥 집에다 냉겨두고 일을 나가요. 뽕이나 한 두어 조각 앵거놓으면 훌륭하죠. 그러다 애들이 나중에 배고프면 흠도 파먹

고.....심지어는 방에다 아예 가둬두기도 하는데, 그런 일이 형은 상상이나 돼요?”

그렇게 말하던 후배 녀석은 눈물까지 글썽이던 것이었는데 나는 거역하지 못하고 이른바 그 후원회원으로 등록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후배의 글썽거리던 눈물 때문에 섰돈을 내놓지만은 않았다. 녀석은 내게 당돌하게도 그런 일들이 상상이나 되느냐고 물었지만 내 기억의 저편에 잔뜩 웅크리고 있는 어둡고 살벌한 추억은 단 한 시도 내게서 떠나지 않았던 터였다.

달라들어 부쳐먹고 살만한 농토가 비교적 적었던 내 고향 마을에서는 고양이 콧배기만한 땅의 농사일이 끝나면 재빨리 다른 평야지역에 일을 하러 떠나곤 했다. 어디 개화도며 김제평야 아니면 옥구평야의 대야 임피 등까지,

아이들은 신이 났다. 쪼더미를 한번씩 들출 때마다 번데기가 하나씩 찾아지는 일은 재미도 있었다. 시간가는 줄도 모를만 했다. 어딘가에는 분명 아직 발견해 내지 못한 번데기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처음에는 쪼더미를 한단씩 들추어보다가 그것을 풀어 헤쳐 한 주먹씩 들춰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아예 지푸라기 하나씩을 제쳐가며 번데기를 찾곤 했을 것이다.

일이 있고 일손을 필요로 하고 임금을 주는 곳이면 어디든지 상관없었다. 그 때는 대부분 농번기 방학 때여서 나도 따라나서곤 했다. 한가한 소풍길이 아니라 잘만 하면 나도 반몫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었는데 키는 작아도 부지런히 일했으므로 나는 그럭저럭 반몫 취급을 받곤 하였다. 도시락을 싸들고 가던 긴 모내기의 행렬과 끝없이 넓은 들녘,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반몫으로 섬해 달라고 부탁하며 내 키를 추켜세우던 안타까운 모습들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자부하곤 한다. 비록 돈을 벌기 위한 방책이긴 했지만 내 향토의 대표적인 농토들마다 찾아가 나는 씨를 뿌려본 적이 있으며 모내기를 했으며 추수를 했노라고, 이빨을 악물고…….

우리들의 이런 심심찮은 돈벌이는 마을마다 인근마다 금새 알려지기에 충분하였다. 그래서 급기야는 웬만한 이웃들이 이 행렬에 식구들을 거느리고 함께 따라나서기 시작하였다. 새벽네시 쯤이면 어김없이 마을을 빠져나와 기차나 버스를 타고 다시 어디론가 끝없이 걸어가던 그 빛나는 추억 속에는 고통도 쓸쓸한 부끄러움도 내게는 함께 뒤섞여 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남녀노소가 함께 떠나는 마당

이었으므로 문제는 언제나 어린 아이들이었다. 첫먹아까지야 맡기지 못하면 떼어놓을 수도 없었지만 그 이상의 아이들이 세세해 배려할 여유는 어느 집에도 없었다. 그래서 그 긴긴 날동안 어느 뉘집 애라서 흠을 집어먹지 않을 수 있었으며 제 똥을 맛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더러는 잠겨진 방안에 갇혀 너털너털해진 벽지나 문풍지도 뜯어먹으면서 그애들 나이로는 이해 못할 외로움으로 오던 배고픔, 그것을 달래기도 해야했음을 나는 안다. 가뉘지 않은 아이들 더러는 텅텅 빈 마을의 고샅길들을 오가며 강아지와 닭과 거위와 어울리기도 하면서 그들과 먹이를 다투기도 해야 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곰곰 생각해 보니 그 사건이 내 안에서조차 전혀 황당무계하게만 느껴지지는 않는다. 그렇다. 그일은 바로 우리 옆마을에서 그렇게 비롯되었다.

세 살과 다섯 살 두 형제의 아버지는 그애들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리하다가 돼지우리를 떠올렸다. 우리 위의 한쪽에는 시렁을 얹어 쪼더미를 쌓아 놓았는데 쪼더미를 조금만 덜어내면 아이들이 놀며 지내기에 그만한 성싶었다. 그 아버지는 그렇게 했다. 그리고는 일을 나오기 전에 아이들이 좋아하던 번데기 한 봉지를 그 쪼더미

위에 헤쳐 뿌려놓았다.

아이들은 신이 났다. 쪼더미를 한번씩 들출 때마다 번데기가 하나씩 찾아지는 일은 재미도 있었다. 시간가는 줄도 모를만 했다. 어딘가에는 분명 아직 발견해내지 못한 번데기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처음에는 쪼더미를 한단씩 들추어보다가 그것을 풀어 헤쳐 한 주먹씩 들춰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아예 지푸라기 하나씩을 제쳐가며 번데기를 찾곤 했을 것이다. 내가 잘못 봤으니까 그렇지, 어딘가에 번데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번데기는 없었다. 그렇다면 어디 다른 곳에 홀린 것은 아닐까. 그중 큰 아이가 이곳 저곳을 두리번거리며 번데기 한 마리라도 더 찾아내려고 애를 썼다. 그러다가 그애는 결국 끈기의 보람으로 그것을 발견해냈다. 그것은 돼지우리 안에, 돼지가 밟아놓은 발자국 위에 동그마니, 운명처럼 놓여 있었다.

아이는 주저하지 않았다. 팍팍거리던 돼지는 언젠가부터 한쪽 구석에 누워 아무런 소리도 없다. 농번기의 긴긴 여름날 동안, 더구나 빈집에서, 돼지에 게까지 때맞춰 구정물이라도 한 바가지 퍼주는 사람은 없었으므로 돼지도 배가 고팠을 것이다. 자기 배채움에